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43)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듯한



원효의 <진역 화엄경소(晉譯 華嚴經疏) 서(序)>

원효의 스타일은, 그의 삶처럼, 좀 파격적인 데가 있습니다. 가령 <대승기신론>에 대한 원효의 소, 당대 최고라는 현수 법장의 주석을 비교해 보십시오. 법장이 해당 경전의 의미를 풀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면, 원효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텍스트와 자신의 경험이 만나는 자리를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법장의 글이 학자답게 정통적 논조의 형식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반면, 원효의 글은 절인답게, 자신의 통찰을 전달하기 위해 독자적 전략을 구사합니다. 이로 하여 원효의 글은 남다른 생기와 파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가 쓴 <진역 화엄경소>의 서(序), 그 전문입니다.

원효가 전하는 화엄의 근본 소식
晉譯華嚴經疏序 釋元曉 撰

(1) 原夫無障無礙法界法門者, 無法而無不法, 非門而無不門也. 爾乃非大非小, 非促非奢, 不動不靜, 不一不多.

由非大故, 作極微而無遺; 以非小故, 為大虛而有餘. 非促之故, 能含三世劫波. 非奢之故, 舉體入一刹. 不動不靜故, 生死為涅槃, 涅槃為生死, 不一不多故, 一法是一切法, 一切法是一法.

(2) 如是無障無礙之法, 乃作法界法門之術, 諸大菩薩之所入也. 三世諸佛之所出也. 二乘四果之難入, 凡夫下土之所驚駭.

若人得入是法門者, 即能過一念普現無邊三世, 復以十方世界 咸入一微塵內. 斯等道術 豈可思議.

(3) 然依彼門 用看此事, 猶是一日三出門外, 十人共坐堂內, 然然之域, 何有奇特. 況乎, 須彌入於芥子者, 稜來入於大倉也. 方丈內乎衆座者, 宇宙內於萬物也. 內入甚寬, 何足為難乎哉.

若乃鳳皇翔於青雲, 下觀山岳之卑, 河伯屈乎大海, 顧羞川河之狹. 學者入乎此經普門, 方知會學之難能也.

然短翮之鳥, 庇山林而養形, 微鱗之魚, 潛淵流而安性, 所以淺近教門 亦不可已之耳.

(5) 今是經者, 斯乃圓滿無上 頓教法輪, 廣開法界法門, 顯示無邊行德. 行德無畏而示之階階故, 可以進修矣. 法門無涯開之的的故, 可以進趨矣. 趨入彼門者 即無所入故, 無所不入也. 修行此德者, 即無所得故, 無所得也.

於三賢十聖, 無行而不圓. 三身十佛, 無德而不備. 其文郁郁, 其義濶濶, 豈可得而稱焉.

(6) 所言大方廣佛華嚴者, 法界無限大方廣也. 行德無邊佛華嚴也. 非大方, 無以廣佛華. 非佛華, 無以嚴大方. 所以雙舉方華之事, 表其廣嚴之宗.

所言經者, 圓滿法輪 周聞十方, 無餘世界, 遍轉三世, 無際有情, 極軌窮常, 故名曰經. 舉是大意 以標題目, 故言大方廣佛華嚴經也.

법이 일체법이고, 일체법이 한 법이다.

(2) 이렇게 무장 무애한 법이 법계법문의 술(術)이 되니 그곳은 제 보살이 드는 바요, 삼세 제불이 나오는 바이며, 이승(二乘) 사과(四果)가 귀머고 눈멀어지는 곳이고 범부하사(下土)들의 멋모른 웃음거리가 되는 소이다.

이 법문에 든 사람은 한 생각에 능히 무변 삼세를 나눌 수 있고,十方세계를 온통 한 티끌속에 넣을 수 있으리니, 이같은 도

하다. 어디 어려움이 있겠는가.

이는 병행이 푸른 구름을 타고 올라 산악의 낮음을 바라봄과 같고, 하백이 한바다에 이르러 시내 황하가 좁았음을 겸연쩍어 하는 것과 같으니, 배우는 자는 이 경전의 너른 문에 들어서야 비로소 지금까지 배운 것이 약자였음을 알리다.

그렇지만 날개 짧은 작은 새는 산림에 의지해서 크고 있고, 송사리처럼 작은 물고기는 여울에 살면서도 본성에 편안한 법이니,

그때문에, 들어서지 않음이 없다. 이 덕을 닦는 사람은 업음이 없기 때문에 업지 않음도 없다. 삼현 십성이 이에서 행함에 두루하지 않음이 없고, 삼신시불이 구비치 않은 덕이 없으니 (화엄경의) 그 문장이 밝게 빛나고 그 뜻이 넓고 무궁함을 무슨 말로 칭찬하랴.

(5) 대방광불화엄(大廣佛華嚴)이란 이름은, 법계가 무한하기에 대방광(大方廣)이요, 행덕이 끝이 없으므로 불화엄(佛華嚴)이다. 대방이 아니면 불화를 넓힐 수 없고, 불화가 아니면 대방을 장엄할 수 없다. 이래서 방(方)과 화(華)의 뜻을 함께 들어 그 광엄(廣嚴)의 종(宗)을 드러냈다.

이른바 경(經)이란, 원만 법문이 시방에 두루 들리고, 무어(無餘) 세계의, 삼세를 두루 전하니 끝없는 유정(有情)들의 지극한 계도로 최종적 진리라, 그래서 '길(徑)'이라 부른다. 이 취지를 들어, 제목에 걸었으니, 고로 <대방광불화엄경>이라 한다.

무장무애한 법계의 법문 어디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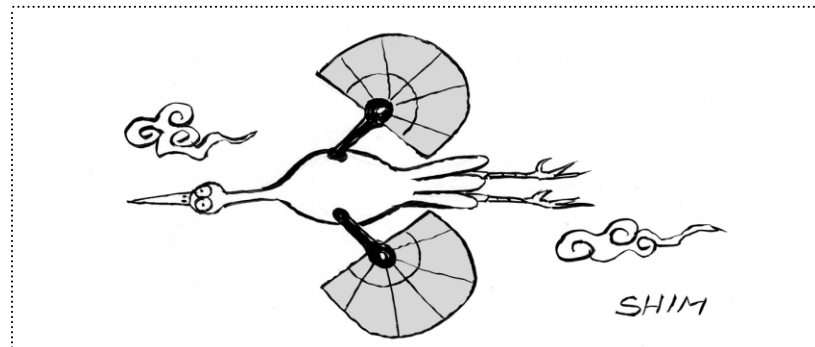
무슨 소린지 알아듣기 힘들지도 모릅시다. 번역도 암호처럼 우선 해 봅시다.

서문을 초별로 번역하면

(1) 대저 무장무애(無障無礙)한 법계의 법문을 확인해보니, 법이 아닌 법이 법이 없다. 그래서 크지도 작지도 않으며,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으며, 움직이는 것도 멈추는 것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고 또 여럿인 것도 아니다.

크지 않은 까닭에 극미(極微)를 지어도 남김 없이 들어가며, 작지 않은 까닭에 태히(太虛)라 하더라도 오하려 남는 자리가 있다. 짧은 시간이 아니기에 거기 삼세겁을 포함하고 있으며, 늘어진 시간이 아니기에 거제(擧巨)가 한 순간에 들어간다.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고요한 것도 아닌 고로, 생사가 열반이고, 열반이 곧 생사이다.

하나도 아니고, 여럿도 아닌 까닭에, 한



슬을 어찌 가히 사의(思議)할 수 있겠는가.

(3) 그렇지만 저 문(彼門)에 기대 이 일(此事)을 보게 되면, 하루에 세 번 문을 나서는 것 같고, 열 사람이 방안에 앉은 듯 텅텅한 세계이니, 무엇 기특한 일이 있겠는가.

하물며 수미산을 겨자씨에 넣는 일이 제미(稊米)를 큰 창고에 들이는 듯하고, 방장(方丈) 안에 여러 사람 들어서는 것이 넓은 우주가 만물을 포용하듯 힘들지 않고 무난

천근한 방편의 가르침이라 하여 내버릴 수 없다.

(4) 지금 이 경은 원만무상의 돈교법문이요, 법계법문을 널리 열어 무변의 행덕(行德)을 현시한다. 행덕을 거리낌없이 내보여도 스럽이 있는 까닭에 가히 닦을 수 있고, 법문이 끝이 없으니 열어도 모두 부합하는 까닭에 가히 나아갈 수 있다.

그 문에 초입(超入)한 사람이 들어서서

수수께끼의 단서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기 힘들다고요. 번역이라고 해 두었지만, 이런 초벌 수준의 언해(譯解)는 정확한 뜻이 전달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수수께끼같은 글을 서너 회에 걸쳐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겁먹지 마십시오. 이 구절은 결코 황당한 수수께끼가 아닙니다. 그것이 전하는 소식은, 강의 첫머리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부연 사족을 달기 이전에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입니다. 즉, <화엄>의 소식이 좀 독특하다 한다면, 그것 또한 제가 이제까지 구구절절 설명해 드린 것 속에 드러나 있으니, 그것 또한 새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주장사파라...

수산사해의 '나이'



조태호

수산: 허공이 나이가 있습니까?

허공: 허공이 나이가 있습니까?

수산: 그대도 이제 죽음이 잦구나

허공: 네 스님...

수산: 수산도 세월을 피해가지 못하거려

허공: 헉헉

수산: 참- 수산의 나이는 얼마지?

허공: 허공과 같군 헉헉

수산: 수산은 생명력과 일체를 이루고 있군

허공: 그렇지 자신이 겪어왔던 지난날을

수산: 자기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지

수산: 허공이 늘어 나가나 줄어드는 법 없듯

허공: 시작도 끝도 없고

수산: 나라는 생각에 노인과 어린이

허공: 낱알과 곡분이 없듯

수산: 헉헉

허공: 헉헉

수산: 헉헉

허공: 헉헉

수산사해(壽山前解) 2-7: 당대(唐代) 스님으로 남악회향 스님의 법소. <전등록>에 기록이 있음.

네티즌 교리문답

사홍서원의 참뜻은?

리뷰 불교에는 총원(總願)이라 불리는 네 가지 큰 원(願-칭된 소망)이 있습니다. <심지관경>에 나오는 사홍서원(四弘誓願)이 그것인데요, 불자들은 언제나 네 가지 큰 서원을 이정표로 삼아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그 내용과 참뜻은 무엇인가요? (보현)

답1: 그 내용은 중생이 아무리 끝이 없어도 맹세코 제도하며(衆生無盡誓願度), 번뇌가 아무리 많아도 맹세코 모두 끊고(煩惱無盡誓願斷), 법문이 아무리 한량없어도 맹세코 모두 배우며(法門無量誓願學), 불도가 아무리 높아도 맹세코 이루겠다(佛道無上誓願成)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홍서원은 단순히 불교 수행의 목적이 아닌 이정표일뿐 아니라, 우리가 원을 일으켜 수행으로 나아가 성불하게 되는 과정과 순서를 그대로 요약한 것이 바로 사홍서원입니다. 부처가 되려는 마음을 낸 이는 먼저 서원을 세우고(先立清淨願), 보살행을 닦아(修習菩薩行)는 말이 있듯, 수행에 앞서 원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특히 이 원은 처음부터 부처 되겠다 성불 하겠다 깨닫겠다 등 이런 것보다는 중생을 구원하겠다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중생을 구원하기 위해 부처가 되는 것이지, 부처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금강소석)

답2: 선과 고가 둘 아니면 뒤러서 교가 중요하다선이 중요하다 분별심을 내렸습니까. 사람마다 마미의 차이가 있는 까닭에 사람마다 깨침에 더듬고 빠름이 있으니 이에 응한 가르침과 수행 방법인들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행자가 차근차근 밟아가게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조사님들의 일초작입어래지 또한 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홍서원에 대해 말한다면, 왜 중생무변인가? 제도할 중생이 따로 있음이 없기 때문이며, 왜 번뇌는 무진한가? 끊어야 할 번뇌가 따로 있음이 없기 때문이며, 왜 법문이 무량한가? 따로 배워야 할 법문이 있음이 없기 때문이며, 왜 불도가 무상한가? 애초에 놓고 닦음이 따로 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그네)

답3: 사홍서원은 불도를 구한 후 다시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부처를 이루어 부처의 자리에서 중생을 구하고, 부처의 자리에서 번뇌를 끊고, 부처의 자리에서 법문을 배우며 부처의 자리에서 부처를 구한 뒤, 처음으로 돌아가 일체 중생이 구제될 때까지 끊임이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생이 무변(無盡)하고 번뇌가 무진(無盡)하며 법문이 무량(無量)하며 나의 서원도 다할이 없으니, 이것을 이름하야네 가지 큰 서원(四弘誓願)이라 합니다. (불학자)

부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1		7		8	
		2	9		10
3	11			4	12
			13		
	5	14		15	
				6	

상식퍼즐

1. 사군자를 이루고 있는 것들 2. 나무 · 돌 · 쇠붙이 · 옥 등에 문양을 새기는 것 3. 열에 여덟을 나타내는 한자서예 4. 고려시대 고승 경한(景閑)이 부처와 조사(祖師)의 설법 등에서 선(禪)의 요체에 관한 내용을 뽑아 엮은 책 5. 세계를 여행하는 것 '80일 간의 〇〇〇' 6. 물결이나 비늘 모양으로 펼쳐진 구조물로 비늘구름이라고도 함.

세로 1. 돈이나 재물을 받고 벼슬을 시킴 8.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 9. 칼을 빠뜨린 자리를 뱃전에 표시해 놓았다가 나중에 그 표시를 보고 칼을 찾으려 했다는 고사(故事) 10. 음력 칠월 보름을 말하며 우란분절이라고도 함 11. 지체에서 견여 들어는 세금 13. 닭 갈비란 뜻으로 그다지 쓸모 있는 것은 아니나 버리기에는 아까움을 비유함 14. 주인 된 국민의 권리 15. 나라의 운수.

정답은 26면에